월/요/광/장

서선희

꽃 같은 그대들

남자 아이라고 해도 스무 살의 한국 남자 아이들은 아이 같다. 입시위주의 학교와 가족 문화 때문에 턱수염도 나고 구레나룻도 있는 성인 어른이 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스무 살 한국 남자 아이들의 특성인 것 같다. 내 아들 녀석도 예외가 아니었다. 독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경제적 독립이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사투를 해야 하는지를 실감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였다.

그렇긴 해도 군대에 갈 때 아들은 불안해하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나 또한 그러했다. 아들은 제 친구들한테 누누이 들어서 군대 생활이 어떻다는 사전 사회화가 되어 있었고, 나는 군대생활을 아들의 치기가 떨어지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자대 배치 후 첫 번째 면회를 가서 본 아들의 모습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 한참을 기다려서 나온 아들은 잔뜩 긴장해 있었다. 빳빳한 군복, 절제된 행동거지와 목소리 속에는 군대라는 엄격한 생활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긴장감이 잔뜩 들어 있었고 어떤 것에도 명령대로 따르겠다는 '군기'가 들어서있었지만, 그것들이 체화되어 몸에 녹아있지를 못해 아직도 남아있는 순진한 치기와 어수룩함도 배어있어서, 보고 있노라니 애처러운 마음이 차올랐다. 20살 어린 나이의 치기가 아직 벗어지지 않은 채, 생소하고도 두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초년병의 긴장은 왜 그리 측은하고도 안 되어 보였는지. 군대 생활의 고생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긴장되어 있으면서도 어리바리하고, 앳돼보이던 아들 녀석의 솜털 때문에 가슴이 짠했다.

그런데, 2010년 3월 26일 초계함의 실종자 명단에 이병과 일병들이 있었다. 아, 이 녀석들도 초년병 군대 생활이 주는 긴장감과 두려움을 잘 극복해가고자 목덜미 솜털을 곤두세우며 긴장했겠구나, 치기 어린 어리바리함을 못 벗어났으면서도 최대한 정신을 붙잡고 있고자 목소리 높여 대답을 하며 군복의 줄을 빳빳이 세웠겠구나, 한 번 경험이 있었던 나는 이병과 일병이라는 계급장을 읽으면서 아들 녀석의 첫 번 휴가가 빠르게 비디오로 펼쳐졌다. 그리곤 "아들이 누워있기는 바닷물이 너무 차요"라는 어느 엄마의 말이 겹쳐지면서 눈물이 솟았다. 꽃 같은 어린 나이에…, 긴장감도 아직 다 못 풀었을 그런 즈음에…, 허공에 손을 허우적대며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을 아이들… 오랫동안 가슴은 벌렁 거렸고, 마음은 스산했다.

46명의 희생에 깊은 애도와 경의를 표한다. 차가운 바다에 자식을 뉘인 그들의 부모님에게도 마음으로부터의 위로를 보낸다.

이 아들들 때문에 우리들은 잘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무슨 원인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미비했는지, 이 같은 비상사태가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비상대처 방식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등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원인과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진실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관련된 집단들의 시각이 숨김없이 개진되되, 각각의 설명과 의문을 침착하게 비교 검토하여 풀어나감으로 "네 탓이오"를 감정적으로 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고난이 분열과 상처를 가져오지 않고 신뢰와 믿음으로 끝나,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광주대 사회복지학부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박철

빌려준 돈 받기 위한 고소 정당한가

필자가 검사로서 고소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은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고 있는데,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사건이다. 즉, 이른바 '차용금 사기'에 대한 고소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차용금 사기'란,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차용금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또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초과 등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용금 사기'의 내용으로 고소하는 대부분의 고소인들에게 위와 같은 요건에 대한 확인을 구하면, 대다수의 고소인들은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남의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되묻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즉, 고소인들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 것인지, 또는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단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처벌하여야 한다면서 고소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고, 그래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민법에서는 보다 손쉽게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담보나 보증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사건에 해당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에도, 우리 사회는 우선 채무자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 이유는 채권자로서는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비용 및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 우선 형사고소를 해 놓으면 수사기관에서 채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고 고소 취하를 부탁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수사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범죄수사라는 그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고소인의 채권추심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와 같은 무분별한 사기고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인들이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채권을 추심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버려야 한다.

나아가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고소에 대하여 고소내용 자체로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을 권유하고, 증거 등이 부족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수가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들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지검 검사〉

기고

김광호

행복지수 높은 드라마를 꿈꾸며

세상은 사람들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드넓은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일상을 다양한 표정으로 감정을 드러낸다. 특히 적은 우주라고 말하는 가정은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원초적인 집단이다.

이 가정 구성원의 감정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완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가정은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희로애락의 길을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 역할에 맞게 행동해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나는 KBS 주말 가족드라마 수상한 삼형제를 최근에 보게 되었다. 그리고 종종 매스컴에서 시청률 몇 % 도달했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글을 보았다.

4월 5일자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기자의 글을 잠시 인용해본다. "KBS 2TV '수상한 삼형제'가 4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보이며 주말 드라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는 32.6%를 나타냈던 전날 방송분보다 4.4%포인트 오른 것이다. '수상한 삼형제'는 이 같은 상승세에 힘입어 40%에 육박한 모습을 보인 것은 물론 주말 드라마 왕좌도 무리 없이 지켜냈다."

이 드라마 제작 의도를 인터넷에서 잠시 살펴보았다. 제작진은 위기(?)를 헤치고 화합해나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주겠다는 기획의도를 밝혔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인간성을 상실한 세태 고발, 이 시대의 현명(?)한 가장(家長)의 역할, 어린이도 어른 되면 이렇게(?) 행동' 등등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을 알리는 드라마로 보인다. '수삼'에서 몇몇 등장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암울한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국영방송 KBS가 주말 황금시간대에 많은 시청자에게 '국민이여 당신들도 우리처럼 따라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 아닐까요'라는 매우 자연스러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듯하다.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륜 드라마의 코드로 맹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방송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많은 가정이 '수삼'처럼 살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살라는 것인지, 왜 하필 온 국민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대에 이런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가정사를 방영하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주위에는 '수삼'의 등장인물처럼 분명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가정은 일상에서 소박한 몸짓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아름답게 수놓기 위하여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KBS는 이 드라마를 하루빨리 종영해야한다.

아무리 작가가 이 작품의 결과를 해피엔딩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듯하다. 단지 수상한 삼형제는 현대인의 일상이 힘겨우니까 그 무게를 잠시 덜어보려는 알맹이 없는 드라마일 뿐이다.

나는 과정이 아름답지 않은 삶은 결코 좋은 결말을 가져올 수 없다고 후학(後學)들에게 강조한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국영 방송인 KBS는 주말 황금시간대에 시청자에게 진정 건전한 삶을 꿈꾸는 이웃들의 삶을 드라마로 완성하여 보여주길 기원한다.

〈여수 여양고 교사〉

가입비만 날리는 멤버십 카드 마케팅 '주의'

얼마 전 연극을 보러 갔다가 'OO문화포털 사이트' 직원이라며 접근한 남성을 만났다. 그는 "당신은 선택받았다. 2만원만 내면 6개월 동안 영화와 연극을 공짜로 볼 수 있다"며 회원 가입을 권유받았다.

평소에 영화와 연극을 너무나 좋아해서 휴대폰 번호와 이름을 적은 뒤 그 자리에서 2만원을 내고 멤버십 카드를 받았다. 그리고 며칠 뒤 극장에 가서 매표소에 그때 받은 무료 영화 멤버십 카드를 제시했다. 그런데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이 카드로는 영화를 볼 수 없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 알아본 결과, 이 카드는 영화 시사회만 참석이 가능했다. 더욱이 시사회 영화도 당첨이 돼야만 볼 수 있었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가입 후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인증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 고생이 장난 아닌 경우도 많다. 공짜로 볼 수 있는 영화라고는 시사회 뿐인데 누가 무료 시사회를 돈 내고 회원 가입해서 보려고 하겠는가. 젊은 남녀분들이 길거리 마케팅 하는 이런 경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윤미·광주시 서구 양3동

참고서 등 교재가격 인상 규제 필요

이번에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간 아이가 있어서 참고서를 사기 위해 서점에 갔다. 그런데 책값이 작년에 1학년 것을 살 때보다 엄청 올랐다. 과목별 자습서 한두권씩은 있어야겠기에 구색을 맞추다 보니 한 10만원 선이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1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서점 주인 말로는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분량이 늘었기 때문에 자습서도 덩달아 값을 올린 것 같다고만 얘기했다. 책의 내용이 바뀌거나 추가되면 책값이 좀 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책의 내용이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뀔것이며, 제한된 1년내에 배우는 교과 분량이 늘어나면 또 얼마나 늘어나겠는가. 분량이 약간 첨가되고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자습서 가격을 무려 두 배씩 올려 받는 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자습서 값이 크게 올라도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왜냐면 요즘은 책이 종류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 책에 맞는 자습서는 교과서와 출판사가 같아야만 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모든 과목의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바뀌고 그때마다 출판사가 가격을 올려 대면 학부모들의 부담은 자꾸만 늘어날 것이다. 이것을 규제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선화·광주시 서구 마륵동

사설

실망스런 민주당 6·2 지방선거 경선

지난 10일 광주시장 후보경선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민주당의 6·2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은 지대하다. 광주·전남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자 지역민의 민주당에 대한 감정은 아직까지는 증(憎)보다 애(愛)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와 희망을 기대했던 민주당의 후보경선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실망을 넘어 '그럼 그렇지'라는 체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10일의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강운태 의원으로 확정됐지만 갖가지 잡음과 탈락후보들의 불복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경선 막판에 '역(逆) 여론조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가 하면 탈락한 후보들은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경선 재심청구와 경선 효력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개혁과 변화는커녕 '만신창이 경선'이 된 것이다.

전남도지사 경선은 출발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3명의 후보 가운데 2명이 경선방법이 특정후보에게만 유리하게 됐다며 등록 자체를 거부해 자칫 경선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각 기초단체장 경선 역시 온갖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경선은 줄서기와 비방, 고소, 계파 싸움, 결과 불복과 같은 구태(舊態)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 경선의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칙도,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처음 시도한 배심원제도 사실상 실패했다. 한마디로 당 지도부가 역량이 부족하거나 당권 유지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이런 식의 경선으로는 6·2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없다. 차기정권 창출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려면 개혁과 혁신, 과감한 기득권 포기 등을 통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연이은 구제역 발병, 방역체계 문제점 없나

인천 강화군에서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네 차례 구제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살처분 규모도 소·돼지 등 2만5천854마리를 넘어섰다.

정부는 구제역 관련 위기경보를 '주의(Yellow)'에서 '경계(Orange)'로 격상시키고 비상대처에 들어갔다. 사상 처음으로 경계 경보를 내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100~3천 배에 달하는 돼지까지 양성으로 판정돼 축산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구제역 종식을 선언한 지 불과 16일 만에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연이은 구제역 발병으로 국내 가축방역 체계의 안전성이 의심받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구제역 종식 선언을 하면서 외국 여행을 매개로 한 구제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농장주 등에 대해 72시간 동안 농장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은 중국을 방문했던 농장주를 통한 감염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역체계의 허점으로 구제역 빈발(頻發)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구제역은 한번 발병하면 축산물의 해외 수출길이 막히는 등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하다. 후진국형 질병인 구제역이 반복될 경우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가축 전염병은 방역망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다. 특히 구제역은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초동 대응으로 전남 등 전국으로의 확산을 막는 것이 차선이다.

구제역뿐만 아니라 조류 독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가축 방역 매뉴얼에 허점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시급하다.

無等鼓

고추장의 진화

한국은 발효음식의 종주국이다. 청동기 이전부터 쌀과 콩을 재배해왔고, 삼국시대에는 이를 이용한 발효식품들을 다양하게 하여 먹었다. '장맛이 변하면 집안이 망한다'거나 '한 고을 정치는 술맛으로 알고, 한집안 일은 장맛으로 안다'는 말이 전해올 정도다. 그만큼 일상에서 발효식품을 중시했다는 얘기다.

김치류와 젓갈류, 식초류, 주류 등 5대 발효식품 중에서도 장류(醬類)는 음식의 맛을 지배하는 양념으로 사용돼왔다. 이 가운데 간장과 된장은 일찍부터 발달했고, 고추장은 임진왜란 이후 고추가 들어오면서 첨가됐다는 게 통설이었다.

최근 고추장의 역사가 이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식품연구원 권대영 박사팀은 1433년 발간된 향약집성방과 1460년의 식료찬요(食療纂要)에 '椒醬'(초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고추장을 일컫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원을 둘러싼 논란과 상관없이 한국인들은 매운맛 때문에 고추장을 선호한다. 신세계이마트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고추장 판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매운 정도가 높은 제품의 판매량이 월등히 많았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되레 시원함을 느끼는 식습관 탓이라는 분석이다. '국민 간식'으로 친숙한 떡볶이와 비빔밥 등에 널리 이용되면서 고추장의 인기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정부와 식품업계는 이달 말부터 고추장의 매운맛을 5단계로 구분해 표기하는 표준등급을 도입기로 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제품 선택이 쉬워지고 수출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앨빈 토플러는 30년 전 '제3의 물결'을 통해 세계인의 맛이 발효의 맛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공적인 '소금의 맛'과 '양념의 맛'을 거쳐 자연의 맛인 발효식품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발효식품의 대표 주자인 고추장의 매운맛 등급화가 '한식 세계화'를 앞당기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후식 경제부장 who@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